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강화

감사조례 폐기 후속조치 400여 곳 최소 연 1회 점검 위법 뎀 시설 폐쇄 등 조치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수급, 시설 내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시와 시의회가 사회복지

시설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2일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6월10일까지 49일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해 부서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한 후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안내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법인의 경우 최소 3년마다 1회, 시설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400여 곳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정도가 경미하면

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도 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처분 관련 정보는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 처분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하는 한편 수법·미담사례는 발굴·공유해 시설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과 교육 실시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지적사례와 수법사례 등은 즉시 전파해 부정수급 재발방지과 시설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하철 에절 지켜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 임직원 및 서비스마케터,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하나은행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행복지킴 캠페인단'은 지난 20일 전동차 탑승 승객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지하철 타고 내리지 않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기' 등 지하철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올해도 '사랑의 똑딱똑딱' 목수 봉사단 40가구 수리

광주시는 올해도 '행복한 목수 봉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택을 무료로 수리해준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독거노인, 장애인, 요보호 아동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3월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집수리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40가구를 목표로 이달부터 집수리에 들어간다. 올해는 이주노동자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자재비 등은 시비로 지원하고 '행복한 목수 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모두 171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왔다.

'행복한 목수 봉사단'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원업체와 중흥동 건축자재 특화의 거리 상인회, 광주제능기부센터 자원봉사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배운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민간과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아늑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광주장애인탁구훈련장에서 합동 훈련을 한 시청 장애인탁구팀과 싱가포르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싱가포르 장애인탁구팀 합동훈련

광주시는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인 게임을 대비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과 싱가포르 장애인 탁구팀이 광주장애인탁구훈련장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싱가포르 장애인탁구 협회에서 광주시 장애인탁구의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면서 이뤄

졌다. 싱가포르 장애인탁구 선수단은 아론 예오(Aaron Yeo), 에릭 팅(Eric Ting), 제이슨 쉘(Jason chee) 등 휠체어선수 3명과 임원(보호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훈련 기간 중 지난 15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활동을 살펴보는

민중화 성지이자 스포츠 도시인 광주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훈련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선수단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양국 선수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실시되는 2018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탁구종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광주시 탁구팀 김정길, 김성욱, 서수연 선수 등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市 거리 설문 '행복한'·'개발·오염 심각' 등 선택

광주시민들은 광주 이미지로 긍정과 부정을 섞은 6가지 단어 중에서 '행복한', '활동적인' 단어를 다수 선택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과 환경오염이 심각한'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대중교통이 불편한'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공공·편의시설 부족한' 순이었다.

원하는 지속가능한 광주의 모습으로는 '강이 맑고 푸른 숲과 공원이 많은', '겉고 삶은 길과 대중교통 중심의', '즐거움 축제와 볼거리·놀거리가 많은' 등에 답이 많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48주년 지구의 날 기념 광주행사'를 맞아 지난 21일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주제로 시민의 생각을 실로 엮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실을 사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 대한 이미지와 문제점, 내가 원하는 광주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설문조사로서 지역, 연령, 성별을 구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엮어냈다. 퍼포먼스에는 모든 연령대와 성별이 골고루 참여한 가운데 19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총중량 20t 초과 화물차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트럭과 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는 23일부터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선행 자동차와 충돌 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 충돌 경고 장치' 기능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는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번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대당 4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 가운데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1800여 대와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800여 대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성능규격과 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발급 가능한 인증 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신청은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지 관할구 교통담당부서로 제출하면, 시가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사회복지재단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는 오는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지역 아동센터 먹거리 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 기반 구축 프로젝트로 '리모델링푸드 콘서트(Food Concert)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유통 체계의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프로그램의 합리적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이성도 광주사회복지공동

“지역아동센터 식자재 유통 투명하게”

내일 '리모델링푸드 콘서트 1차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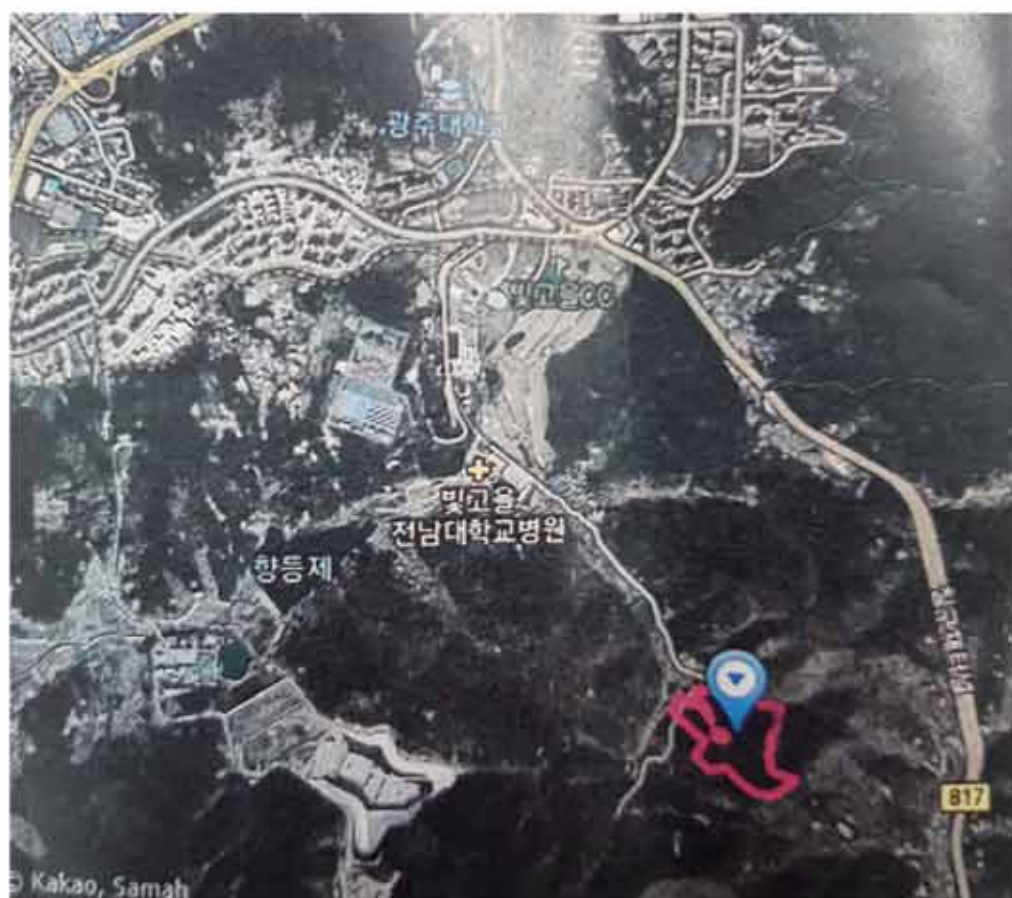
모금회 사무처장, 송희순 광주보건대식 품영양학과 교수,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김상욱 행정복지시 상무1동 동장, 장은미 광주시지역아동센터지원단장, 이규환 (사)사회복지재단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대표 등 6명이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회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장 50명도 참석한다.

(사)사회복지재단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는 사회복지혜택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

해 지난 2006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법인)다. 그동안 문화예술공유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사)사회복지재단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유통 과정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 아동센터의 안전한 식자재공급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만원~~ - 급매 5만원 (일시불 원불조건)
- 문의. 010-6838-1230